

〈特輯〉

日本의 原子力産業

… 제 18 회 原子力産業報告書 …

序 言

日本原子力産業会議는 日本 原子力産業의 經濟面의 實態를 把握하고 그 問題点의 分析을 通하여 産業으로서의 正常的인 發展을 期할 것을 目的으로 原子力開発 当初부터 每年度 鉱工業, 電氣事業, 商社等 널리 關係産業에 있어서의 原子力 關係의 支出, 売上, 人員等의 實態 및 将來展望에 關하여 調査, 分析을 実施 하였다. 이 報告書는 그 第 18 次 調査結果, 1976 年 4 月부터 1977 年 3 月 까지의 一年間에 걸친 原子力産業의 實態를 分析한것을 간추린 것이다.

當 調査年度의 經濟的 背景으로서는 1973 年 가을 石油波動으로 戰後 最大의 不況에 直面한 1974 年度 이후 展開된 財政 金融政策等에 依하여 生產水準도 前年에 比하여 若干의 上昇을 나타내긴 했으나 經濟 全般에 걸친 景氣의 浮揚感이 널리 퍼지지 못하고 따라서 過去의 高度成長期에 있어서의 索引的 原動力이었던 民間設備投資는 上向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특히 製造業에 있어서의 減少의 幅은 頗著하였다. 이와같은 經濟 勢下에 있어서 經濟의 健全한 發展 및 國民福祉의 向上을 指向하고 實効性과 合性있는 綜合 에너지 政策의 立案, 이를 바탕으로한 各種 施策에 강력한

展開의 要請이 갑자기 높아지고, 原子力産業會議 等 関係團體의 강력한 要望도 있고 해서 1977年 2月에 首相스스로 主宰한 綜合 에너지 対策 各療會議의 設置를 보았다. 그 後 関係 各界의 協力으로 原子力を 中心으로한 에너지 安定供給確保를 위한 具体的 施策과 그를 위한 財源措置의 檵托가 推進되고 1977年 6月에는 綜合 에너지 調査會議需給部会의 留意적인 장기 에너지의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原子力を 中心으로한 立地難 打開를 위한 電源立地推進對策이 수립되는 等 에너지 問題에 대한 全體의 인식이 깊어 지고 장래의 本命은 原子力 이라고 하는 막연한 여론이 이 루어 지는 時期였다.

原子力開発에 関連한 政策展開 等에 関하여서는 当 年度에 가장 特記할 것은 首相의 자문機関인 原子力行政懇談회가 原子力行政의 改革・강화에 関한 意見을 간추린 것이다.

이 밖에도 原子力委員會의 放射性廃棄物 対策에 関한 基本方針의 決定, 原子力環境整備센타의 発足, 原子力委 動力炉開発專問委員會의 回答, 原子力發電機器, 設備改良標準化에 関한 通產品의 中間報告書等, 環境整備, 技術開發等에 関한 方向도 수립되었다.

위와같은 事実을 배경으로 하여 今回調査에서 밝혀진 原子力産業의 經濟的 實態를 通하여 짐작 할 수 있는것은 原子力關係의 電氣事業의 支出高는 当年度에 比하여 3割 程度 伸張을 보이고 있으나 鉱工業의 支出高는 거의 同一한 水準에 머물러 있고, 支出高는 若干 減少되긴 했으나 前年度 減少률 본 受注殘額은 6割程度

의 增加를 보이는等 속이 빈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엿보이고 있다.

設備投資關係에서는前述한 바와같이 民間 全體 設備投資의 減少傾向이 특히 製造業에서 현저했던 事実에도 不拘하고 原子力關係의 広工業의 生產設備投資는 前年度에 比하여 2割 弱에 伸長을 보이고 있으며 우라늄 採鉱開発部門, 其他에서 新規參加가 있었던 点에 그 主因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의 支出 展望에 関해서는 前回 調査에서 5年後에 関해서도 1976年度 実績을 下回하는 탐탁치 않는 展望을 보여주고 있던 鉱工業은 今回調査에서는 5年後에는 1976年度 実績에 對하여 5割程度의 增加를豫想케 하고 電氣事業에 있어서도 해마다 拡大될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5年後에 있어서는 当年度 実績의 4倍程度의 伸長이豫想된다.

目前에 다가오고 있는 電力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前述한 総合에너지 對策 等의 推進이나 原子力 行政体制를 整備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関係業界가 計劃的인 準備를 착실히 推進 시키고 그 기반을 굳혀 나아 가려는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한편 日本 原子力產業의 탄생 以來 宿命의인 것이 되어왔던 赤字傾向은 売上高의 미미한 감소도 있고해서 当然한 일이긴 하지만 今年度에도 解消되지 않고 過去 21年間의 赤字累計는 1,300億 이상에 達하고 있다.

研究支出은 2割弱에 伸長을 나타내고 研究投資率(研究支出高/

上高)은 7.3 %였다. 이와 関連해서 本 調査対象의 鉱工業 金分野의 研究投資率은 1.3 %이며, 原子力産業의 研究集約的 性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人員面에 있어서도 技術係에 関해서는 鉱工業 電氣事業 할것없이 장차 増強될 可能性이 보이며 그 중에서도 安定管理 技術系의 伸長이 현저하다.

以上 今回 調査關係를 通하여 綜合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장래 에너지 供給의 核心으로서 原子力의 本格的 開發利用에 對備한 電氣事業의 変함없는 開發은 말할것도 없고 前回調査에서 수요 예상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해서 극히 어려운 예상을 보여 주면 鉱工業 関係가 그 後에 政策展開에 적응하여 資金 人員面에 있어서 研究 開發 努力を 計劃的으로 推進하여 着実히 지반을 굳혀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美國의 新 原子力政策 等 原子力 開發util을 基워싼 國際環境은 냉혹하고 復雜化 해지고 있는 今日, 日本으로서는 如何한 國際政勢도 對應할 수 있는 技術과 体制를 確立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이며 따라서 어려운 때에도 変 함이 없이 성심껏 노력하고 있는 原子力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拔本的인 財源措置等을 포함하여 原子力 開發에 関한 더 한층 計劃的인 進行 姿勢가 요청된다.

今回の 調査를 發表함에 있어서 이 實態調査의 實施에 쾌히 만반에 協力を 베풀어 준 企業體 諸位와 関係者 여러분에게 새삼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